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특별한 올림픽'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사장)

나란히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구간서 참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릴레이에 봉송주자로 나섰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성화의 서울 입성 첫 날인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구간 봉송 주자로 조 회장 부자가 참여했다. 국내 성화봉송에서 재계 부자가 주자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정비사 등 임직원 20명도 봉송 지원 주자로 함께 뛰었다. 대한항공 성화 특별 전세기가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지난해 11월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성화는 전국을 돌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조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연이 깊다. 2009년 9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성화봉송 서울 첫째 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성화를 전달받고 있다. 성화를 전달받은 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장으로 활동하며 2011년 7월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또 2014년 7월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 동안 경기장 신설, 스폰서십 확보 등 준비 사항을 차질 없이 성사했다.

한진그룹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3월 대한항공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협약을 맺고 국내 후원사 중 최고 등급인 공식파트너로서 항공권 등 현물을 지속 후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파리의 아파트

밝은세상/기음 위소 지음



기음 위소의 본격 스텔러 '파리의 아파트'는 그가 한국에서 14번째로 출간하는 장편소설이다. 무려 20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등재되며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구해줘'를 비롯해 이후 출간한 13권의 소설이 모두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만큼 기음 위소는 여전히 프랑스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가다.

이번 '파리의 아파트'는 죽기 직전까지 납치된 아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찾아 헤매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천재화가 손 로렌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그림 석 점과 납치된 아들을 찾아 나선 전직 형사 매들린과 극작가 가스파르가 비밀의 열쇠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천재화가의 신비스런 창작 세계,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전직형사 매들린과 극작가 가스파르는 임대회사의 실수로 파리의 아파트에서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한다. 천재화가 손 로렌츠가 살았던 집으로 여전히 그의 숨결과 자취가 배어 있는 그 집의 법적상속인은 그들에게 화가의 납치된 아들과 사망 직전에 그린 그림 석 점이 사라진 사실을 이야기한다. 매들린과 가스파르는 의기투합해 화가의 그림과 아들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 손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눈앞으로 다가서는 연쇄 살인마의 그림자와 대면하게 된다.

408쪽, 1만4500원

/신원선 기자 tree6834@



과학캠프 참가 학생들이 카이스트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직접 제작한 친환경 여교하우스를 들어보고 있다. /한화그룹

한화-KAIST, 중학생 50명 과학캠프

한화그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중학생 대상 과학캠프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KAIST 대전 본원에서 펼쳐졌다. 과학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대전지역 중학생 50명이 참가했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과학영재 학생들

을 발굴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한화그룹과 카이스트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과학 원리를 배우고 친환경 에코하우스와 오프봇(오픈소스 하드웨어 로봇)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물리·생물·기술공학 수업이 제공됐다.

/오세성 기자 sesung@

아무도 나에게 상처주지 않았다

북리뷰/박인철 지음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나름의 처방전을 제안하는 생활철학서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인생경험과 함께 늘어놓는다. 저자는 살아있는 현자들의 말 속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상처받지 않기 위해 깨달아야했던 본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224쪽, 1만5000원

/신원선 기자

신점[神占] 운세

1월 15일 (음 11월 29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60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72년생 멀리 내다보세요. 84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습니. 96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61년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73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97년생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세요.



50년생 여자를 주의하세요. 62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4년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세요. 86년생 남자아이를 낳게 되며 아이가 약한 것이 흠입니다.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78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90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5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옛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59년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7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길합니다. 83년생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95년생 사방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4	6	7			
4	3			8			1	7
		7				9		
		7		5				
	1	2		8	3			
	4							2
	7	5		2		1	4	
		6				8		
3			9	7	1			5

			1				2	6
8						6		4
2				7				
	8		9		4			
	3	5					4	1
			6		3			8
						9		
4			2					7
	2	3				1		

스도쿠 정답

5	9	2	1	4	6	7	8	3
6	4	8	7	5	9	2	1	3
3	7	1	9	2	8	5	4	6
1	2	4	8	6	9	8	7	5
9	5	8	7	2	1	6	4	3
8	6	7	5	1	4	9	2	3
7	8	6	2	4	1	5	9	3
2	1	9	6	8	5	2	4	7
4	5	4	9	7	6	1	8	3
6	7	1	4	9	8	5	2	3
4	5	9	1	8	7	8	6	7
2	8	5	6	7	4	1	9	3
5	8	6	4	1	9	2	7	4
9	1	7	2	8	4	5	6	3
3	2	4	7	5	6	9	8	1
1	6	5	8	4	1	8	7	9
7	4	8	9	2	1	6	5	3
8	9	2	6	7	5	1	4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임신이 어려운 현대 여성들

결혼 적령기를 지난 지 오래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찾아오는 칠순을 넘긴 부모님들도 적지가 않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어 가는데 아이를 가진 생각도 안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숨을 쉬는 분들도 적잖이 계시다. 멀쩡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 놓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젊은 부부들이 적지 않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자니 시대가 달라져도 한 참은 달라졌다는 생각에 격세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것도 보통 걱정거리의 아닐 것이다. 지난 달 법회 때 어떤 노인도 한 분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손녀딸이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병원에서 하는 시술을 받고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실패하였다 한다. 결혼하고 2년은 신혼을 즐기겠다고 일부러 피임을 한 모양인데 그 이후부터는 아기를 갖고자 당연히 피임도 중단하였는데 계속 임신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들어서는 인공수정에 이름이 난 병원에 다니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손녀딸 자신도 스트레스가 많아 이제는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하도 답답하니 원장님께 묻는다며 하소연을 한다. 손녀딸이 81년 신유생(辛酉生)이니 이제는 서른여덟 살이고 올 해도 안 되면 내 년인데 걱정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손녀딸의 사주명조를 보아하니 태어난 해의 년지(年支)와 일지(日支)가 화금(火金)으로 상극하는 가운데 자녀의 기운이 되는 상관성(傷官性)에 공망이 들어 있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아예 자식 운이 없는 사주는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요하니 예전 같으면 칠성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일 리가 없으니 천상 천정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흔히 말하는 임신부를 써보는 방법도 방편이 된다. 다행히 세운 적으로도 2018년 음력 5, 6월경엔 손녀의 자녀 궁에 공망이 되는 지지에 함이 들어온다. 이럴 때 공망이 잠시 힘을 잃으니 그동안 몸을 편안하게 하여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 사주팔자의 원국에 자손이 귀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아기가 생길 운이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갖고 수태가 잘 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위해 섭생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위에 말했듯 칠성기도 또한 최소 삼칠일은 할 것을 권하였다. 희색을 띠우며 돌아가는 노인도분이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